IFES 연구보고서
2022-03



북한은 김정은 체제 10년을 어떻게 인식·평가하고 있는가?

김 상 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김 상 범

동국대 북한학박사
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겸 기획홍보실장
연구분야: 북한정치, 냉전기 북한외교
저　　서: "North Korea's Aid to Cuba dur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022),
"북한 자주연대 외교 연구-1960년대를 중심으로,"(2021),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216'의 정치상징화 지속과 북베트남의 교훈을 중심으로,"(2021) 등.

IFES 연구보고서 2022-03

북한은 김정은 체제 10년을 어떻게 인식·평가하고 있는가?

인 쇄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발 행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발행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 소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전 화 02-3700-0700
팩 스 02-3700-0707

인쇄처 ㈜늘품플러스(070-7090-1177)

정 가 비매품
ISBN 978-89-8421-551-1 93340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IFES

목차

Ⅰ. 서론 3

Ⅱ. 자체 인식·평가의 의미와 중요성 9

Ⅲ. 김정은 체제 10년의 북한 자체 인식 및 평가 17

1. 정치 분야 17
2. 경제 분야 24
3. 군사 분야 33
4. 대남·대외 분야 37
5. 사회·문화, 보건·의료 분야 42

Ⅳ. 각 분야 전망 49

1. 정치 분야 49
2. 경제 분야 51
3. 군사 분야 54
4. 대남·대외 분야 56
5. 사회·문화, 보건·의료 분야 57

Ⅴ. 결론: 정책적 고려 사항 61

참고 문헌 63

회원가입안내 67



I

서론

Ⅰ. 서론

○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 10년을 각 분야별로 어떻게 인식·평가하고 있는지를 종합, 분석하고 전망과 정책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임.

-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당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동년 12월 당 정치국 결정으로 최고사령관에 취임함.
-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대체하고 위원장직에 취임함으로써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지도자에 등극함.
- 전문가들은 지난 김정은 체제 10년을 ▲당 회의체의 정상적 운영, ▲법·제도에 근거한 통치 방식으로의 전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강령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공식화 등을 통해 김정일 시대에 비해 체제 안정성 및 내구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김정은 체제 10년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는 ▲김정은 시대 통치 이데올로기와 국가전략, ▲국가정상화 전략 평가와 전망, ▲군의 역할 변화, ▲북미, 북중관계 변화 등 주로 대내외 정책의 사후 '평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기존 연구에서 북한 당국이 특정한 정책, 노선의 근간이 된 대내외 상황에 대해 북한 스스로 인식·평가에 기초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북한의 자체 인식·평가를 토대로 어떻게 자신들의 정책과 노선을 변화시켜왔으며, 선대 지도자들과의 차이점 및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를 어떻게 평가, 대응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로이드 젠슨(Lloyd Jensen)은 외교정책을 논하면서 "정책의 결정은

그 지위를 가진 이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며, 결국은 그가 속한 사회의 전통과 신념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음.[1]

- 이것은 자체 인식이 신념과 연결되며 종국적으로 이를 통해 무엇을 이룩하려하는가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줌.

○ 연구의 시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법·제도적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10년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로 설정하고 있음.[2]

○ 주 자료는 로동신문이며, 분석 대상은 10년의 인식·평가·성과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문임.

- 로동신문, 신년사 및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문은 북한의 대내외 정세 인식 및 평가, 국정 운영방향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 중의 하나임.[3] 로동신문은 대내적으로는 당의 입장과 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의 간부와 인민들에게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임.
-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인식, 신념, 목표, 북한 국정에 대한 정책을 동시에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며, 북한과 같이 정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국가에서 최고지도자가 아니면 아무도 결코 할 수 없는 것인 만큼 학문적으로도 매우 중요함.[4]

1_ Lloyd Jensen, *Explaining Foreign Polic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2), pp. 33-34.

2_ 동태관, 김철, 리룡민, "정론-주체혁명위업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다-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억세게 전진하여온 성스러운 10년의 혁명력정에 삼가 이글을 드린다-제3편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 『로동신문』, 2021년 12월 22일, p. 1.

3_ 박형중, "북한 신년사에 나타난 정세인식과 대내외 정책(1989-2019)," 『통일문제연구』, 제32권 1호(2020 상반기), p. 2.

○ 본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됨.

-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자기 인식·평가의 의미와 중요성, 제3장에서는 김정은 체제 10년의 정치, 경제, 군사, 대남·대외, 사회·문화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인식·평가 및 자체 대응,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음.
- 제4장에서는 제3장을 토대로 각 분야를 전망하고, 제5장은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논함.

4_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 19.

Ⅱ

자체 인식·평가의 의미와 중요성

Ⅱ. 자체 인식·평가의 의미와 중요성

○ **한 국가의 대내외 환경에 대한 자체 '인식 및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정책과 대응'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임. 즉 '인식 및 평가'는 '정책과 대응'과 '원인-결과' 관계를 형성함.**[5]

- 인식·평가는 현실에 기반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국가 중요 가치를 보존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들의 행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분석의 틀을 제공함.[6]

○ 급격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생존(survival)을 위해 냉정한 인식 및 자체 평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자기 인식·평가는 책임감을 전제로 한 자기 생존과 관련된 개념임을 의미함.[7] 즉 '생존'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발전과 번영이라는 '비전'과 관련된 것임.
- 이러한 인식은 주로 세계질서와 해당 지역에 대한 정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선택 혹은 그 대안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선택된 정책을 합리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단결을 위해 활용되기도 함.

○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료주의 정치(bureaucratic politics)시스템에서는 체제 생존을 위해 ▲국가 안보의 이익,

---

5_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 14-16.

6_ *Ibid.*

7_ Marvin Zetterbaum, "Self and Subjectivity in Political Theory," *The Review of Politics*, Vol. 44, No. 1 (January 1982), pp. 62-66.

▲당을 비롯한 조직의 이익, ▲국내정치적 이익, ▲최고지도자 개인의 지위·역할에 의한 정치적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8]

- 북한의 현실을 적용해 봤을 때, 이익(interests)은 최고지도자가 당시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을 어떻게 인식·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과 동시에 역할 행위의 중요한 근거임을 알 수 있음.
- 지도자는 과거의 업적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와 관련하여 자신의 구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권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변화를 시도함. 북한 체제의 특징상 생존을 위한 '국가이익 극대화'는 지도자의 구상에 의해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9]
- 다시 말해, 김정은 체제 10년의 인식·평가는 바로 상술한 이익들을 구현함으로써 체제 생존을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이었음을 의미함.

○ 특정 국가가 비생산적, 비효율적 방향으로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평가하는 것은 정치적 오인, 오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성원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큼. 그러므로 체제 내 여러 난제들은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음.

○ 상술한 내용은 '평가적인 자기 존중(evaluative self-respec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가능하며,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 즉 자부심과 수치심에 기반하고 있음.[10]

8_ Jutta Weldes, "Bureaucratic Politics: A Critical Constructivist Assessment,"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42, No. 2 (November 1998), p. 218.

9_ 안제노·이수석, 『김정은시대 권력구조의 재편과 김정은의 통치구상』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p. 11.

10_ Stephen D. Hudson, "The Nature of Respect," *Social Theory and Practice*, No. 6 (1980), pp. 69-90; Robin S. Dillon, "Self-Respect: Moral, Emotional, Political," *Ethics*, Vol. 107, No. 2 (January 1997), pp. 230-231.

- 성과는 자신들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관련된 개념이며,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한계는 자부심을 전제로 자기 방어적인 감정을 의미함. 자신들의 기대, 예상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혹은 그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 손상될 수 있는 존엄과 가치에 대한 사전 경고의 의미가 있음.[11] 그러므로 한계는 자기 존중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음.

○ 사회주의 체제의 자체 인식·평가는 특정 인물의 업적이나 성과를 선전,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음.[12]

-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의 경우, 인민들의 관점에서 최고지도자의 업적이나 성과는 그의 장점, 능력, 의지, 용기, 진정성 등 리더십으로 인식·평가하는 경향성이 강함. 이 과정에서 최고지도자의 겸손은 대인민 의존성을 의미함.
- 인민들의 관점에서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합리성은 특정한 상황과 사건에 대응한 '특별한 정책'을 선택, 결정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최고지도자는 선택권자(chooser) 및 영웅으로 묘사됨.[13]
-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당·국가 회의체의 정상적 운영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중심으로 '판단과 선택'을 통해 국가이익을 추구해오고 있음.

○ 북한 체제에서 당과 국가의 주요 임무는 성과 또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11_ Ibid., p. 229.

12_ Daniel Statman, "Modesty, Pride and Realistic Self-Assessment,"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42, No. 169 (October 1992), p. 426.

13_ Jutta Weldes, op cit., p. 222.

것임.[14]

- 북한은 인민에 대한 '존중(respect)'과 '보호(protection)'의 개념에 입각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도덕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이는 전체 인민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조치로 본질적으로 체제 존중 및 자부심을 위한 것임.[15]
- 더 나아가 도덕을 최고지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통해 체제 안정성 및 내구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음.

○ **결론적으로 북한의 자체 인식·평가는 성과, 문제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위한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 조성이 그 목적임**.

○ 현재까지 김정은 체제 10년의 평가와 관련한 연구는 다수가 존재함. 그러나 지난 10년 간 북한이 스스로의 모습, 상황 및 성과들을 어떻게 인식·평가해 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인 현실임.

- 인식은 '관(觀)'을 의미하므로 이에 기초한 김정은 체제 10년 평가는 원인·과정 및 결과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기존 연구는 크게 인식·평가, 평가·전망 두 부류로 전개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후자의 연구가 대다수임.
- 본 연구는 지난 10년 간 ▲정치, ▲경제, ▲군사, ▲대남·대외, ▲사회·문화 및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 북한 스스로의 인식·평가 및 성과를 분석할 것임. 이것은 김정은 체제 10년의 정치과정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14_ Robert E. Lane, "Government and Self-Esteem," *Political Theory*, Vol. 10, No. 1 (February 1982), p. 5.

15_ Robin S. Dillon, op cit., pp. 230-231.

- 이는 북한의 사회적 행동의 원인, 배경, 현황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함.

Ⅲ

김정은 체제 10년의 북한 자체 인식 및 평가

Ⅲ. 김정은 체제 10년의 북한 자체 인식 및 평가

1. 정치 분야

가. 자체 인식 및 평가

○ **북한은 2016년 5월,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당 대회에서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체제가 붕괴된 1980년대 후반부터 당 대회 직후 시기까지를 제국주의 및 그 연합세력들과 자신들의 간의 체제 붕괴 대 수호를 위한 '단독전'으로 규정하고, 체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기로 인식하고 있음.**

-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스템 붕괴 및 체제 전환 당시, 미국을 비롯한 친미 성향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사회주의 체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고립과 압박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함. 또한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의 시도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판단하고 있음.

  ※ "세계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적 공세가 우리 공화국에 집중된 전대미문의 시련의 시기 우리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 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수십년동안 우리 인민이 단 한시도 마음편히 살 수 없도록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키고 온갖 봉쇄와 압력, 제재로 경제발전과 생존의 길마저 깡그리 가로막아놓았습니다."[16]

- 이것은 북한이"세계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체제 간 대립"이며, 자신들만이 혁명과 자주의 기치 아래 유일하게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 발전시키고 있는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16_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개회사,"『로동신문』, 2016년 5월 7일, p. 2.

○ **이러한 인식하에 북한은 지난 10년을 김정은 총비서의 현명한 영도 아래 사상 초유의 도전과 난관을 거대한 승리로 전환시키며 당과 국가, 인민의 존엄과 권위를 만방에 과시한 영광스러운 시기로 설명하고 있음.**[17]

- 북한은 지난 10년의 역사를 김정은 위원장과 인민이 김정일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따라 배우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소위 '유훈관철전'으로 설명함.
- 혁명의 승패를 '수령의 영생과 그 위업의 빛나는 계승과 승화'로 규정하고, 이것을 최고지도자와 평범한 인민들이 함께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음.
- 다시 말해, 북한은 이러한 전대미문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과 함께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고수, 발전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음.
- 대표적인 사례로 금수산기념궁전과 삼지연시를 수령 영생을 위한 혁명의 성지로 만든 성과를 소개함.[18]

○ **북한은 김정은 체제 10년의 성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그것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진척, ▲김정일 위원장의 최대 애국 유산인 일편단심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인민적 본성 강화, ▲자립적 경제토대와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의 강화, ▲자위적 국방력의 비상한 발전을 지목하고 있음.**[19]

- 김정은 위원장은 "당이 유례없는 엄혹한 환경 속에서 혁명발전의 매

17_ 채철룡·조학철, "론설-위대한 김정은시대는 우리 인민의 반만년의 숙원이 성취되는 영광의 시대이다," 『로동신문』, 2022년 7월 4일, p. 1.

18_ 동태관·김철·리룡민, "정론-주체혁명위업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다-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억세게 전진하여온 성스러운 10년의 혁명력정에 삼가 이글을 드린다-제1편 장군님과 함께 온 승리의 길," 『로동신문』, 2021년 12월 14일, p. 1.

19_ 조학철, "론설-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인민의 혈연의 정은 영원하다," 『로동신문』, 2021년 12월 16일, p. 1.

단계마다 주체노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위대한 인민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지속적으로 전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 놓았다"고 평가함.[20]

- 북한은 김 위원장이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정식화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새로운 영도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 김 위원장도 당을 강화·발전시키는데 가장 많은 품을 들였다고 인정함.[21]
-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선군사상과 김일성주의가 불가분의 관계이자 완전한 혼연일체의 관계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을 의미함.[22]

  ※ "조선로동당을 필승불패의 향도력과 전투력을 지닌 주체혁명의 강위력한 정치적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령도사에서 가장 특출한 자리를 차지합니다."[23]

- 김정은 위원장은 "당의 강화·발전에 대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며 당과 국가 활동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 의지를 확고히 견지하고 국제정치 무대에서 정치 강국으로서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했음.[24]

20_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p. 1.

21_ 동태관·김철·리룡민, "정론-주체혁명위업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다-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억세게 전진하여온 성스러운 10년의 혁명려정에 삼가 이글을 드린다-제3편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 『로동신문』, 2021년 12월 22일, p. 1.

22_ 안경모, "김정은 시대 통치 이데올로기와 국가전략,"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공동 국제학술회의, 2021.11.2.), p. 21.

23_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2022년 4월 11일, p. 2.

24_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년

- 북한은 제8차 당 대회 이후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대외관계를 비롯한 각 부문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25]
- 북한은 정치 분야와 관련해 김정은 체제 전반기 5년 인식·평가와 불리한 환경과 난관 속에서도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에 의해 체제 내구력을 강화시켰다고 주장함.

○ **이러한 자체 인식·평가는 첫째, 인민의 이익과 요구를 구현하기 위해 당을 적극 활용한 수령의 리더십의 결과이며, 둘째, 지난 10년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민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26]

- 이는 수령과 인민이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설정하고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다지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음.[27]
-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지도자들의 인민관을 계승·발전시킴과 동시에 선군의 흔적을 지우며 자신만의 정치권력의 기반 마련과 권능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음.[28]

  ※ 로동신문 상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사랑·인민존중·인민중시,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 복무 등 인민과 관련한 용어들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29]

5월 8일, p. 2.

25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 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p. 1.

26_ 정영철,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다," 『로동신문』, 2021년 12월 15일, p. 2.

27_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p. 2.

28_ 안제노·이수석, 『김정은시대 권력구조의 재편과 김정은의 통치구상』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pp. 44-45.

29_ 홍민·강채연·박소혜·권주현, 『김정은시대 주요 전략·전략용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것도 인민들과의 관계를 좁히기 위한 시도이며 새로운 소통 방법으로 평가됨.[30]

  ※ "믿음과 헌신, 보답과 의리로 충만된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적 진지가 튼튼히 다져지고 어떤 장애와 도전도 뚫고 나갈수 있는 불가항력적 힘이 축적되였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뚜렷이 부각되였다."[31]

- 북한은 자신의 10년을 "가장 위대하고 역동적인 새시대"로 규정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중평온실남새공장,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세포등판, 마식령 스키장, 양덕문화온천휴양지, 은파군 대청리와 금천군 강북리 살림집 건설을 지목했음.
- 이러한 성과들 중에서 수도 평양이 그 중심축이었다며, 릉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평양육아원, 애육원, 평양양로원, 인민야외빙상장, 류경원, 종합봉사선 무지개, 과학기술전당 등도 성과로 지목했음.

나. 자체 대응, 노력

○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 규약상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명문화하고 성과를 통한 인민들과의 유대감 강화 전략을 구사했음.**

- 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인민이 필요와 요구가 당과 국가의

2021), pp. 14-17; 이형종, 이규민, 유석훈, 송상헌,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북한의 대외인식 분석 연구," 『북한학연구』, 제17권 제2호(2021), pp. 98-99;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20 북한 동향과 분석』 (서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21), p. 454;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21 북한 동향과 분석』 (서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22), p. 577.

30_ 위의 글, p. 60.

31_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p. 2.

최중대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함.[32]

- 북한은 '인민의 심부름꾼당' 사상을 김정은 위원장의 고유한 당건설 사상, 이념, 인민관으로 내세우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최고정화라고 주장함.[33]
- 구체적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및 군민일치, 청년들의 탄원운동 등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체제의 정치적 활력을 제공한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함.[34]

  ※ "우리 인민이 자기의 창조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자력번영의 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는 불굴의 투사들로 성장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성과이다."[35]

○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당 대회, 전원회의 및 정치국·비서국(이전 정무국) 회의, 중앙군사위원회 등 당 회의체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사회주의 정상국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2012년 4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총 2회의 당 대회, ▲총 12회의 전원회의, ▲총 31회의 정치국(확대회의 및 한국 언론에 소개된 비공개회의 포함)회의, ▲총 18회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36]

-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당 회의체 운영을 통해 현안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빠른 대응력과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당의 권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임.

32_ 리철혁,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바라는 것이 당정책이고 국책이다," 『로동신문』, 2021년 12월 23일, p. 1.

33_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2022년 4월 11일, p. 2.

34_ 위의 신문.

35_ 채철룡·조학철, "론설-주체적 힘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새 승리를 앞당기자," 『로동신문』, 2022년 2월 7일, p. 1.

36_ 로동신문 각호를 참고로 저자가 정리.

- 북한은 이러한 기조 하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상 및 혁명영도사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시에 선대 지도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도 집권 초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함. 이것은 선대 수령들에 대한 의존성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줌.
  ※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상 〈혁명활동소식〉의 기사를 보면, 2012년 23회였던 기사는 2013년 15회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참배 및 추모 횟수는 연 평균 7.4회에 불과함.[37]
- 이는 기존 선언적 의미였던 '인민의 의한 사회주의'에서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인민의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미래도 보장받으려는 의도로 보임.[38]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김정은의 혁명사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음.**

- 북한은 정면돌파전의 첫 해였던 2020년 5월 19일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함.[39] 이것은 북한이 2019년까지 로동신문을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 건설 영도사 및 혁명사상에 대해서 소개하였지만, 2020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당 건설 영도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과 일맥상통함.
- 이에 북한은 2021년 2월 16일 광명성절 기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당시 '총비서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재호칭한데 이어 동년 9-10월부터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정식화하여 부르고 있음.[40]

37_ 진희관, "김정은 정권 10년의 '혁명활동'과 대남혁명노선 변화의 의미," 『북한학연구』, 제17권 제2호(2021), p. 18.

38_ 김상범, "제8차 당 대회 개정 규약에 대한 분석, 평가," 『IFES Brief_2021-18』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1.6.10.), p. 4.

39_ "사설-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 『로동신문』, 2020년 5월 9일, p. 1.

- 북한은 2022년 6월 현재 자신을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 및 강대국'으로, 현 시대를 '김정은 시대이자, 인민의 시대'로 규정했음.[41]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업적으로 인해 사회주의 국가들 중 최장의 역사를 자랑하며 영원불패의 사회주의 강대국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관 및 영도력이 사상 최악의 시련기를 국력 강화의 최전성기로 전환되게 한 결정적인 요인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2. 경제 분야

가. 자체 인식 및 평가

○ **북한은 지난 10년을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강화시키는 시간', '적대세력들의 제재 봉쇄 책동 등으로 사상 최악의 시련을 이겨내고 있는 과정'으로 인식함.**

- 북한은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나라의 정치군사적 위력이 백방으로 다져지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 속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라고 평가함.[42]
- 북한은 "지난 10년 간 사상최악의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도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풍부한

40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2월 17일, p. 1; "사설-사상제일주의기치높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로동신문』, 2021년 9월 27일, p. 1.

41_ 리룡민, "우리 당, 우리 나라, 우리 세상은 인민의 당, 인민의 나라, 인민의 세상이다," 『로동신문』, 2022년 6월 3일, p. 1.

42_ "사설-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꽃펴나는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 끝없이 빛을 뿌릴 것이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9일, p. 1.

경험을 터득하였다"고 주장함.[43]

- 북한은 김정은 정권 초기 5년에 대해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경제의 자립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평가함.

○ 김정은 위원장은 제7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음.

- 이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이는 집권 초중반기 북한은 내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의 부족, 경제 부문별 심각한 불균형이 있음을 시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 마련을 강조했다는 의미였음.

○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를 전후해 공업화 수준의 향상, 경공업 부문의 성장, 과학농사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경제의 자립성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함.**

- 첫째, 북한은 지난 10년간의 경제 분야 평가에 대해 총결기간 내 자립경제의 원료, 연료, 동력기지가 강화되고 생산 공정이 개선되는 등 공업의 발전구조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 둘째, 경제 분야에서는 자립경제의 근간인 금속 및 화학공업의 성과를 토대로 대규모 중요 건설대상사업이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농업, 국토건설, 도시경영, 과학, 교육, 보건 등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함.[44]

43_ 채철룡·조학철, "론설-주체적 힘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새 승리를 앞당기자," 『로동신문』, 2022년 2월 7일, p. 1.

44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

- 셋째, 자신들은 최단 기간 내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 선진수준에로 도약할 수 있는 자립적 발전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기술 역량 및 인민들의 창조적 힘은 자신들의 귀중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주장함.[45]
-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6월 15일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혁명투쟁의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은 더 어려워졌지만 상반년 기간동안 공업총생산액계획을 144%, 지난해 동기에 비해 125%로 넘쳐 수행하고 현물량적으로도 많이 장성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나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일어서고 있다고 평가함.[46]

○ **김정은 체제 10년 동안 북한은 강력한 군사력이 당과 인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인식을 지속하고 있음.**

-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 및 경축대공연 '당을 노래하리라'에서 당과 인민들은 위력한 주체의 병기들을 보고 당이 제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을 향하여 총매진할 것을 다짐했음.[47]

○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목표 미달성을 인정하고, 그 배경 및 원인, 인민 생활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 지적. 특히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 있는 간부의 부족과 기존 간부들의 실력 부족을 매우 심각히 보고 있음.**

- 북한은 "당 대회 결정 관철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은 나라의 경제를 하루빨리 추켜세우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함.[48]

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p. 1.

45_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 연설,"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p. 2.

46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개최," 『로동신문』, 2021년 6월 16일, pp. 1-2.

47_ 리수정, "하늘땅을 진감한 우리 국력에 대한 자부심," 『로동신문』, 2021년 1월 17일, p. 8.

※ 내각 부총리 양승호는 "경제지도 일군들은 당 대회 결정을 관철하지 못하고서는 살아있을 권리가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분발하겠다"며,[49]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목표에 대한 해당 간부들의 각성된 태도를 보여줌.

-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와 관련해 경제 목표 미달성과 그 원인 및 인민생활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연이은 자연재해 및 코로나19 소위 '3중고'를 인정했음.
- 경제 부분의 문제점으로 ▲새로운 경제적 조치들을 취하면서 경제실천과 인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고려하지 못하는 현상, ▲경제사업을 계획하고 작전하면서 경제법칙과 원리를 무시하는 현상, ▲관건적인 고리에 력량을 집중시키지 않고 여기저기에 널어놓는 현상, ▲현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지 않고 경제사업을 주관적으로 조직하여 사회적 로동의 랑비와 혼란을 가져오는 현상을 지목했음.[50]
- 눈여겨 볼 대목은 김 위원장은 상술한 내용과는 별도로 ▲당의 경제발전전략 수립 과정상의 문제, ▲경제사업 체계 및 질서의 문제(기관본위주의, 특수주의 관료주의 포함), ▲간부들의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 등 체제 안정성과 내구력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질타했다는 점임.
- 북한은 현 시기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재의 부족을 지적하고 경제와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사업부터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51] 또한

48_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펼친 진로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평양시 군민련합대회 진행," 『로동신문』, 2021년 1월 17일, p. 4.

49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양승호동지의 토론," 『로동신문』, 2021년 1월 17일, p. 5.

50_ 내각국장 조용덕, "경제부문들간 유기적련계와 협동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로동신문』, 2021년 3월 9일, p. 3.

51_ "인재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로동신문』, 2021년 3월 10일, p. 3; "사설-인재관리, 인재육성사업을 혁신하여 발전과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21년 3월 20일, p. 1.

실력이 없는 간부들의 관료주의 행태를 비판하며 그들에게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재강조함.[52]

- 이것은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 및 경제 관료들의 사상성, 전문성 부족을 안보의 공백이자 국가의 약점,[53] 즉 '위협(threat)'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가지는 파괴력에 주목하면서도 당과 최고지도자의 영도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함.

※ "장기간의 야만적인 제재봉쇄는 다른 나라들 같으면 경제 파산과 함께 정권 붕괴, 국가멸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시련이었다."[54]

나. 자체 대응, 노력

○ **북한은 부진한 경제실적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화된 자력갱생 강조, ▲당 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 ▲노선과 전략·전술적 대책들을 확정, ▲당의 지도기관을 정비·보강,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55] ▲지방경제의 활성화 등 국가의 통일적 지휘와 관리 밑에 경제를 움직이는 체계와 질서의 복원을 강조함.**

- 북한은 기존 개별적인 경제단위가 자체로 살아나가는 경제활동 방식이 아닌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 밑에 진행하는 국가적, 계획적,

---

52_ "일군들의 높은 실력은 실질적인 성과의 전제," 『로동신문』, 2021년 3월 19일, p. 2.

53_ Stuart E. Eizenstat, John Edward Porter and Jeremy M. Weinstein, "Rebuilding Weak State," *Foreign Affairs*, Vol. 84, No. 1 (2005), pp. 133-134; Jeffrey Reeves, "A Search for Causality: China's Non-Traditional Security and State Weakness," *Europe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3, No. 1 (2014), p. 102.

54_ "론설-우리의 당기는 존엄과 승리, 전진의 기치로 영원불멸할 것이다," 『로동신문』, 2021년 10월 6일, p. 1.

55_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0년 8월 20일, p. 1.

과학적인 자력갱생을 강조. 이것을 경제 계획성과 균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함.[56]

- 제7차 당 대회 결정사항인 '5개년 전략'이라는 모호한 개념보다는 '5개년 계획'으로 명명하고 내각의 역량 강화를 주문함.
- 김정은 위원장은 ▲신임 총리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 ▲내각 부총리 등 내각의 주요 보직을 당 중앙위원과 겸직, ▲당내 경제정책실 신설, 실장의 내각부총리와 당 중앙위원 겸직, ▲제8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검사위원회의 전체 위원들의 교체, ▲제14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 인사 28명을 임명(김덕훈 내각총리와 양승호 내각부총리 제외)을 통해 당과 내각의 위계관계를 차단하고 내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경제 분야 역량 강화와 실적을 독려함.[57]
- 이는 경제 회복 및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스템의 복원을 의미함.[58]
- 북한은 지방경제 활성화(지방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2021년 3월 3일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진행. 이 강습회에서 시·군을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 거점으로, 시·군의 발전이 국가의 부흥임을 강조함.[59]

○ **여기서 주목해야 부분은 경제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생산 단위들이 정해진 법과 제도적 질서를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한 사실임.[60] 이것은 선대 지도자들의 경제정책과 확연히**

56_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사상을 깊이 체득하자-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임무의 하나," 『로동신문』, 2021년 4월 24일, p. 1. 자력갱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임을출, 『김정은시대의 자력갱생-계승과 변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21), pp. 151-166를 참고.

57_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21 북한 동향과 분석』, p. 244.

58_ 김일한, "선군에서 인민으로, 국가정상화전략 평가와 전망,"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공동국제학술회의, 2021.11.2.), pp. 48-53.

59_ "론설-시, 군의 발전이자 국가의 부흥이다," 『로동신문』, 2021년 3월 28일, p. 1.

다른 점임.

- 북한은 이를 위해 경제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실성 있는 작전과 임무 분담을 치밀하게 짜는, 소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을 강조함.[61] 북한은 계획과 관련해 일별, 월별, 분기별, 현물지표별로 엄격히 수행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울 필요성을 강조함.[62]
- 이것은 계획-생산-분배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 하 '잘못된 계획'을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했음을 의미함. 또한 '잘못된 계획으로 인한 잘못된 생산과 분배'의 경제 악순환을 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이며,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혁신의 출발점을 '계획'으로 보았다는 의미임. 이것은 경제계획 문제를 대하는 선대 지도자들과의 명확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경제계획을 곧 당의 지령이고 국가의 법이며, 계획 수행의 여부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규정하며,[63] "당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 진군을 어떻게 시작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함.[64]
- 이것은 본질적으로 당이 법·제도를 통해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등 계획을 저해하는 무질서와 혼란들을 제거해 경제적 목표 달성과 성과를 독려하겠다는 의미임.
- 더 나아가 이에 근거해 경제 부문을 장악, 통제, 지휘를 함으로써 당과

60_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 연설,"『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p. 2.

61_ "사설-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경제작전을 면밀하게 짜고들자,"『로동신문』, 2021년 1월 26일, p. 1.

62_ "사설-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자,"『로동신문』, 2021년 2월 14일, p. 1.

63_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의 첫해 진군부터 경제부문 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최대로 분발하자,"『로동신문』, 2021년 2월 18일, p. 3.

64_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을 깊이 새기자,"『로동신문』, 2021년 2월 19일, p. 1.

최고지도자의 결정을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해 권력의 누수 현상을 제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임.

○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외경제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분야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65]

- 북한은 나라 경제의 활성화, 인민생활 향상, 변화된 환경과 현실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

  ※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철저히 립각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부분과 고리를 보충하는 방향에서 대외경제협조와 기술교류, 무역활동을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책략있게 벌려야 한다."[66]

- 상술한 내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음. 첫째, 내부 경제적 상황 및 대외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체제 생존을 위해 현실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심각히 고민했음을 보여줌.
- 둘째,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발전된 북한만의 경제, 과학 분야 기술을 '창조'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문제 해결 및 인민생활 향상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줌.

○ **경제 문제와 관련해 선대 지도자들과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 기술 관료들을 당과 국가의 핵심 부서에 임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들의 정치적 역할과 발언권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임.**

-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부터 경제관리 문제에 있어서 내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주로 군 인사들의 영향력에 의해 그들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65_ 탁용달,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제: 인식, 정책 그리고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 (2020년 겨울), p. 143.

66_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 연설,"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p. 2.

- 내각 총리 출신 김재룡을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당의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장에 임명한 것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과 인사에 대한 권한 부여의 의미가 있었음.
- 동시에 내각 총리의 역할과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경제 분야 조직과 통제 능력 복원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강조한 것은 당과 군의 경제사업을 내각으로 이관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었음.[67]

※ 2021년 1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내각 간부들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기념촬영과 관련된 로동신문 기사에서 "전체 참가자들은 나라의 경제사업을 통째로 맡겨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총비서 동지를 …(이하 생략)"로 소개함.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각 간부들에게 실질적인 경제문제에 대한 내각 책임제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됨.[68]

※※ 북한은 2021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반당, 반국가적,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제일장애로 규정하며 당 중앙위원회 결심사항으로 전면전을 선포

- 더욱 주목할 사실은 내각 총리 출신이자 당 조직지도부장이었던 김재룡을 2022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에 새로이 임명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에 저해를 주는 당 규률 위반 행위 일체를 감독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임.[69]
- 북한은 당 규률 위반행위들의 범주에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특세 등 일체, 당, 국가, 인민들에 대한 위해행위들을 포함시키고 있음.[70]

67_ 김상범, "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개최의 정치적 의미," 『IFES Brief_2021-0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1.2.18.), p. 2.

68_ 김일한, "선군에서 인민으로, 국가정상화전략 평가와 전망," p. 52.

69_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로동신문』, 2021년 1월 10일, p. 2.

70_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1년 1월 11일, p. 3.

특히 이 조직이 군 내 당 조직에 대한 감독, 조사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군사 분야

가. 자체 인식 및 평가

○ **북한은 국방 분야 강화의 당위성과 목표를 ▲주변 강대국들의 존재 및 패권경쟁,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사회주의 조선의 존엄과 자주권 수호라고 주장하고 있음.**

- 북한은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대국들 사이에 위치하고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자신들의 고립,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의도, 목적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평가함. 그러므로 국익수호의 담보인 국가 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함.[71]
- 최근 북한은 국제 및 동북아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권쟁탈을 위한 열강들의 모순과 대결의 격화, 즉 미중 전략적 경쟁에 주목하고 있음.

○ **북한은 현재 자신들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정치역학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인식·평가하고 있음.**[72]

※ "반만년 민족사에 일찍이 가져본적 없었던 강력한 힘, 절대적인 힘을 틀어쥐고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급부상한 우리 조국!…(중략)…김정은시대는 영원히 전쟁이 없는 땅에서 살고싶어하던 우리 민족의 천추의 한을, 오매불망 바라마지 않았던 세기적 숙망을 풀었습니다. 조선반도의 정치력학적구도도 완전히 말라졌습니다."[73]

71_ 채철룡·조학철, "론설-주체적 힘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새 승리를 앞당기자," 『로동신문』, 2022년 2월 7일, p. 1.

72_ "김정은시대는 우리 민족의 강성시대입니다-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 『로동신문』, 2022년 1월 15일, p. 2.

73_ 위의 신문.

- 북한은 2012년 4월에 개정된 신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최초로 명시하였음.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핵 능력을 선택했음을 의미함.
-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11월 대사변'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 '위대한 김정은의 조선'이 세계위에 우뚝 섰다고 주장하고 있음.

○ **북한은 2022년 4월 29일 조선인민혁명군 창립 기념 열병식에서 핵무기 사용의 양면성을 드러냄.**

- 북한은 핵무기에 대해 국방력을 강화하여 미국이나 남한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안보용 목적, 자신들에게 충분한 정치·경제·외교적 보상을 제공한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협상용 목적에 대해서 주로 언급해 왔음.
- 그러나 안보 위협시 남한에게도 핵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암시. 이는 핵 개발 동기와 사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줌.

○ **북한은 제8차 당 대회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당의 최대중대사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방력 강화를 최우선시 하고 있음을 인정함.**

- 김덕훈 내각 총리는 2021년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한 선서를 통해 "내각은 국방공업 발전과 무장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자금을 최우선 앞세워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힘.[74]

74_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서 한 내각총리의 선서," 『로동신문』, 2021년 1월 18일, p. 3.

- 김정은 위원장도 20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2021'에서 "국가방위력의 우선적 발전을 떠난 우리혁명의 그 어떤 발전과 성과도 생각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합니다"라며[75] 국방력 강화 우선에 기초한 체제 유지, 발전 전략을 재확인함.

나. 자체 대응, 노력

○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북한은 현재 제8차 당 대회 군사전략, 즉 "국방공업의 비약적인 강화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제8차 당 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화와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정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0km 전방 종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제시함.

○ **중요한 것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임.**

- 2021년 1월 개정된 당 규약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서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과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고 명시하고 있음.[76]
- 이는 기존 '군사 분야에 대한 당적 조직지도'에서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지위와 역할을 구체화하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당적 통제의

75_ "국방발전전람회에서 하신 김정은동지의 기념연설-주체110(2021)년 10월 11일," 『로동신문』, 2021년 10월 12일, pp. 1-3.

76_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2021.1),"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30조 참고.

강화를 의미함.

- 이 과정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정치활동과 도덕생활 감시, 통제, ▲무력기관의 주요 직제 및 지휘성원들의 해임 및 임명, ▲군의 경제적 역할 강조, ▲한반도 주변 정세와 자신들의 대내외 환경의 요구에 맞게 국가방위사업 강화를 제시함.
- 북한이 당과 국가의 주요 행사시 군 열병식을 자주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당과 수령의 군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강화 업적을 기리기 위해 평양시 교외 낮은 언덕에 소박한 사적비를 건립함.[77] 국가 핵무력 완성을 기념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사적비 건립 사실을 최초로 공개함.

- 김정은 총비서의 군 강화 업적에 대한 사적비 건립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을 의미하지만, 수령의 혁명역사를 통해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힘을 경제발전 및 혁명, 건설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78]

※ 김정은 위원장의 혁명영도와 관련한 현지지도 표식비, 표식주 및 사적비 건립은 총 6건으로 확인됨. ①은파군 대청리(표식비와 표식주), ②금천군 강북리(표식비), ③홍원군 운포로동자구(표식비), ④단천시 선광동(표식비), ⑤검덕연합기업소(표식주), ⑥평양의 교외(사적비)[79]

77_ 동태관·김철·리룡민, "정론-주체혁명위업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다-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억세게 전진하여온 성스러운 10년의 혁명려정에 삼가 이글을 드린다-제2편 새시대의 탄생," 『로동신문』, 2021년 12월 20일, p. 1.

78_ 한성훈, 『북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인민의 얼굴』 (파주: 돌베개, 2019), p. 51.

79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 표식비와 현지지도 표식주 황해북도,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건립," 『로동신문』, 2021년 9월 12일, p. 1.

4. 대남·대외 분야

가. 자체 인식 및 평가

○ **북한은 비록 강대국간의 패권 경쟁이라는 인식 하에 미중 전략적 대결 구도, 소위 '신냉전'을 현 국제정세 변화의 주요 특징으로 인식.[80] 이러한 신냉전이 한반도에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첫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 둘째,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을 지적함.
- 북한은 "국력이 강성했던 고구려 시기에도 외세의 침입은 중단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한 미중 간 연합 가능성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81]
- 국제정세 변화 과정에서 남한이 자신들을 견제한다는 명분 하에 각종 군사연습 및 군비증강을 하는 것은 '대미 추종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 남겨둬 예상치 못한 여러 충돌을 재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82]
- 북한은 상술한 상황과 관련해 한미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고 비난함.

  ※ "우리를 대화와 협력의 상대가 아니라 위협의 대상으로, 억제해야 할 상대로 규제한 것 자체가 겉으로는 아닌척해도 숨길수 없이 뼈속깊이 체질화된 반공화국 적대심의 집중적인 표현입니다…(중략)…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80_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 연설,"『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p. 3.

81_ 채철룡·조학철, "론설-위대한 김정은시대는 우리 인민의 반만년의 숙원이 성취되는 영광의 시대이다,"『로동신문』, 2022년 7월 4일, p. 1.

82_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 연설,"『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p. 3.

적대적이지 않는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83]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의 투철한 자주에 대한 신념과 노련하고 담대한 외교활동으로 인해 자신들의 대외적 지위가 급상승하여 국제정치의 중심에서 높은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함.**[84]

-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가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공격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하며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적대국가들도 자신들의 체제와 인민을 존중하게 만들었다고 주장. 북한은 이를 김정은 위원장의 불멸의 공적으로 칭송하고 있음.
- 북한의 이러한 인식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와 함께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이끌어 내며 북미 간 역학관계를 변화시켜 체제의 위상을 과시했다는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은 이미 되돌릴수 없는 과거사로 되었으며 우리 공화국이 오늘처럼 세계정치의 한복판에서 높은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한적은 없었습니다."[85]

※※ "당중앙위원회는 총결기간 조미사이의 력학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훌륭히 과시하였다. 적대적인 조미관계사상 처음으로 열린 두 나라 최고수뇌들의 직접회담에서 당중앙은 강한 자주적대를 가지고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확약하는 공동선언을 이루어내였다."[86]

83_ "국방발전전람회에서 하신 김정은동지의 기념연설-주체110(2021)년 10월 11일," 『로동신문』, 2021년 10월 12일, p. 2.

84_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2022년 4월 11일, p. 2.

85_ 위의 신문.

86_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p. 3.

○ **김정은 위원장이 위와 같이 평가하는 이유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인식·평가 때문으로 보임.**[87]

- 지정학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투쟁이며, 반대나 대안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춤.[88]
-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을 둘러싼 정세가 복잡한 것은 자신들이 큰 나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거나 그들 속에서 끼여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대국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전략적 요충지는 한반도가 역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을 조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의미함. 다시 말해, 한반도가 대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89]
-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이 지정학적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90]

○ 북한은 대남정책 관련 평가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국통일이라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 관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의 결과로 인식함.

-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선대 지도자들의 업적을 고수, 발전시킨 자신의 고유한 정치적 성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중요한 점은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전쟁의 입구에 다가서는 엄중한

87_ 위의 신문, p. 2.

88_ 콜린 프린트 지음, 한국지정학연구회 옮김,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길, 2009), p. 61.

89_ 지봉철·리성길·리희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교수참고서-고급중학교』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pp. 10-11.

90_ "국방발전전람회에서 하신 김정은동지의 기념연설," 『로동신문』, 2021년 10월 11일, p. 3;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p. 3.

정세를 돌려세웠다,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을 선언"[91]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극적인 변화'의 의미가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영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임.

나. 자체 대응, 노력

○ **북한은 자체적으로 강대국이라는 인식·평가를 강화, 발전시키고 있음.**

-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사상으로 인해 강국의 지위를 '인민관', 즉 "나라의 국력과 인민의 존엄 및 지위가 인민이 얼마나 무탈하여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가방위력도 이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음.[92]
-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과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자신들의 국제적 지위가 지난 시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북한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나라, ▲자기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주변 형세와 세계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확립되고 있다고 주장함.[93]
- 더 중요한 것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도 '김정은의 북한'이 있어서 유지, 담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임.[94] 이것은 동북아 지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정세를 판단하고 관련 문제를 북한에게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영도력이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미임.

91_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 연설,"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p. 3.

92_ 동태관, "정론-인민의 심부름군당," 『로동신문』, 2021년 5월 14일, p. 1.

93_ 평양출판사, 『위인과 강국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20), pp. 567-569.

94_ 위의 책.

-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이전처럼 선제적 도발이나 제재 해제 등의 협상에 집착하기 보다는 협상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미국의 전략과 행동에 따라 자신들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가변적인 행보를 의미함.[95]
- 마지막으로 강국의 의미는 강국의 지위에 맞는 역할 수행과 동시에 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 이것은 주로 핵보유국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 **북한이 2021년 1월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전제 조건을 '본질적'인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가 체제 인정, 고유의 정치·경제·군사적 권리 및 자율성 인정 및 군비 축소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자신들의 인식·평가를 반영함.[96]**

- 대남 분야와 관련해 북한은 2021년 1월 수정된 당 규약을 통해 강력한 국방력에 근거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 제거, 안전과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이는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의 성과를 대남·대외관계에 활용하겠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미중 전략적 경쟁 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경색된 북미,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특히 남북관계는 평화적인 경쟁과 동등한 협력에 기초할 때 한반도 구성원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며, 통일에 얽매이기보다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로 설정해 지속적인 상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의미임.

95_ 홍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1): 전략적 기조,"『Online Series』, CO 21-03 (2021).
96_ 김상범, "제8차 당 대회 개정 규약에 대한 분석, 평가,"『IFES Brief_2021-18』(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1.6.10.), p. 5.

○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해 보면, 북한의 대남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째, 핵문제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과 남한의 대응, 둘째, 한미연합훈련과 한국군의 군비증강에 대한 대응임을 알 수 있음.**[97]

- 북한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선결 요구조건'이라는 명분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상호 간 강경, 유화 정책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임.
- 설상가상으로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한미동맹,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립적 외교안보 구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남북관계도 이러한 구도 하에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북한은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미, 중 어느 '일방적인 힘'이 국제질서 및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우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지역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5. 사회·문화, 보건·의료 분야[98]

가. 자체 인식 및 평가

○ **북한은 김정은 체제 10년의 의미를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는 새 시대의 서막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평가함.**

- 북한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시스템 붕괴 시기(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 미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으로 인해 인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애로사

97_ 정성장,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10년 평가 및 전망,"『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공동 국제학술회의, 2021.11.2.), pp. 234-236.

98_ 이 분야는 세부적으로 교육·출판, 체육·보건, 문학예술, 문화유산·관광 및 근로단체의 조직, 활동까지 포함함.

항이 있었음을 인정함.

- 지난 10년은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문명의 실체들을 부단히 창조, 확대하며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려는 당 정책의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된 격동의 나날로 정의함.
- 자신들의 문화를 김일성 시대와 같이 세계 5대 문명의 하나인 '대동강 문명'으로 재규정하며 사회주의 문명국의 역사적 기초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임.[99]

○ **북한은 사회주의 문명의 실체를 '인민들의 생활환경 변화'로 정의하고 있음.**

- 이것은 자본주의 문명과 대조되는 사회주의 체제만의 강점과 김정은 위원장의 특출한 인민관과 영도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임.
- 자신들의 인민생활향상 정책은 단순히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 수준으로 복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20-30년을 기한부로 반드시 실현하는 것이 '당의 이상이고 투쟁목표'라고 주장함.[100]
- 북한은 삼지연시, 평양 보통강강안지구의 호화주택, 마식령 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양덕문화온천지구 건설 등을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기지이자 인민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설명하고 있음.
- 북한은 이러한 발전에 대해 "자신들의 저력 및 발전 잠재력에 대한 실증"이며, 이로 인해 "인민들이 창조력을 증대시켜 자력번영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불굴의 투사들로 성장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성과"라고 주장함.[101]

99_ 채철룡·조학철, "론설-위대한 김정은시대는 우리 인민의 반만년의 숙원이 성취되는 영광의 시대이다," 『로동신문』, 2022년 7월 4일, p. 1.

100_ 위의 신문.

101_ 위의 신문.

○ **북한은 사회·문화, 보건·의료 분야 관련 지난 10년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들은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도덕적 기강 확립,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인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함.**[102]

- 북한은 이에 대해 사회주의 사상과 제도를 지키고 빛내기 위한 '심각한 정치투쟁이며 첨예한 계급투쟁'으로 정의함.[103]
- 북한은 반·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침식하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로 정의하고 있으며,[104] 이는 본질적으로 수령에 대한 충성심 이완과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반·비사회주의 투쟁에 대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는데 철저히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기본 장애라고 규정하고 제8차 당 대회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인 통제를 하고 있음.
- 이것은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도덕적 기강 확립의 문제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저해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105] 더불어 인민의 창조적 노동력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체제 안정성과 내구력을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지난 2년간 북한은 자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상방역규정 확립이라는 강도 높은 방역 장벽 구축을 통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102_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 연설,"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p. 3.

103_ 위의 신문.

104_ 북한의 반·비사회주의 경향과 의미에 대해서는 박서화, "비사회주의 투쟁의 최근 경향과 함의," 『IFES Brief_2021-2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1.7.2.), pp. 1-6 참고.

105_ "우리 식 사회주의 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강령투쟁-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p. 5.

○ 김정은 체제 10년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북한의 자체 인식·평가는 아래와 같음.

- 첫째, 교육·출판 부분 관련해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원격교육체계가 확립된 것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교육사업의 새로운 발전임.
- 둘째, 체육·보건 관련해서 ▲이 분야를 중장기정책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정책 추진 계획 제시 및 성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상방역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한층 강화되고 정연한 사업체계와 토대가 확립, ▲체육을 과학화하고 체육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들에서 성과, ▲국가적인 재해 방지와 위기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진척되어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 등에 기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 것임.
- 셋째, 문학예술 관련해서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혁명사상과 사상을 높이 받들고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시대의 명곡들을 창작, 형상함으로써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빛내이고 인민들에게 혁명적 신심과 낭만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106]
- 넷째, 문화유산·관광 관련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 정책에 따른 국가급 민족 유산 발굴 및 보호, 민족 문화 유산 보호 정책에 따른 보호 대상의 확대에서 성과가 있었음.[107]
- 다섯째, 근로단체의 조직, 활동 관련해서 당 대회 및 근로단체 대회를 통해 2019년부터 반·비사회주의 경향 척결 및 집단주의 생활양식, 준법기풍 확립 등을 체제 수호와 관련된 사업으로 인식하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106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표창을 수여받은 중요예술 단체,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시고 축하해 주시였다,"『로동신문』, 2021년 7월 12일, p. 1.

107_ 북한은 2012년부터 비물질 문화유산 비롯한 천연기념물 등 민족문화유산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상징물과 유용동물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나. 자체 대응, 노력

○ **북한은 청년 세대들의 교육이 체제 유지의 관건으로 인식·평가하고 있음.**

-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로 양성시키는 것을 당과 국가의 중요사업으로 평하고 있으나, ▲청년동맹 간부들의 사상성 부족, ▲무책임한 사업 태도, ▲청년동맹 안의 무원칙한 체계와 규율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108]
- ▲동맹 내부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 ▲청년들 속의 반·비사회주의 현상 및 이와의 투쟁 사업 미비,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에 앞장세우기 위한 사업 미비를 그 원인으로 지적함.[109]
-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청소년들의 사상교양을 바로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혁명, 반사회주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인식·평가함.[110]
-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애국청년으로 준비시키고 선대 수령들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옹호,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명칭을 변경했음.
- 북한은 청년동맹의 명칭을 변경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회주의 길'을 강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맹의 활동과 조직상 문제가 많아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판단함으로써 선대 지도자들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보임.

108_ "주체적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 새로운 전환적 계기-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대회 개막," 『로동신문』, 2021년 4월 29일, pp. 1-2.

109_ 위의 신문.

110_ "론설-사상제일주의를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자," 『로동신문』, 2021년 8월 23일, p. 1.



Ⅳ

각 분야 전망

Ⅳ. 각 분야 전망

1. 정치 분야

○ **북한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명문화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통치 이데올로기의 안전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임.**[111]

- 북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특출한 사상리론적예지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창시되고 심화발전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상 독점해석권과 유일영도체계 강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이러한 노력은 현실 사회주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로 보이며,[112] 이후 인민들 중심의 역사, 그 속의 최고지도자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역사를 현재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북한이 법·제도적 통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고지도자 임의로 이전과 같은 대량 숙청 등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종국적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사상에 기반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유한 혁명사상, 즉 김정은의 혁명사상이 체계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됨.**[113]

111_ 김상범, "제8차 당 대회 개정 규약에 대한 분석, 평가," 『IFES Brief_2021-18』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1.6.10.), p. 4.

112_ 귀스타브 르 봉 지음, 정명진 옮김, 『사회주의의 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부글북스, 2018), p. 341.

- 북한은 2022년 1월 11일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114] 동년 3월 28일 당 제1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에서 '총비서동지의 혁명사상'[115], 9월 30일자 로동신문 1면에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 혁명사상 만세!"라는 사진과 표어를 제시했음.[116]
-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이라는 용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혁명역사를 공식화하는 사전 준비 작업이자 구체화, 체계화시키는 과정으로 보임.

○ 이러한 기조 하에 2013년 6월 수정·보충된 당의 유일영도체계확립 10대 원칙도 기존 당의 역할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수정, 보충될 가능성도 있음.[117]
- 예를 들어, 당중앙이라는 용어가 김정은 총비서로 명확히 규정되고, 온 사회의 김정은주의화라는 용어가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함.

○ 당·국가 회의체의 정상적 운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당·국가 회의체 활용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통해 지도와 총화를 강화하고 당 규약에 근거해 조치를 지시하며, 당과 국가의 관료들은 그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는 모습을 지속하는 등 제도 준

113_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니신 특출한 사상리론적예지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창시되고 심화발전될수 있은 중요한 요인(2019.8.31.)," 조선사회과학자협회 홈페이지 중 '김일성-김정일주의 강좌편' 참고.

114_ "사설-당중앙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룩해 나가자," 『로동신문』, 2022년 1월 11일, p. 1.

115_ 사설-전당을 학습하는 당으로 만들자," 『로동신문』, 2021년 10월 28일, p. 1; "조선로동당 제1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개강," 『로동신문』, 2022년 3월 29일, p. 3.

116_ 리강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조이다," 『로동신문』, 2022년 9월 30일, p. 1.

117_ 정교진, "북, 당의 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재차 손보나?," 『DAILY NK』, 2022년 1월 14일. 〈https:// www.dailynk.com/〉. (검색일: 2022년 7월 31일).

수와 인식의 전환을 통해 당과 최고지도자의 권능을 정당화 시키는 방식이 더욱 체계화 될 것으로 전망됨.[118]

-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정책 결정과 지시에 집중하고 현지지도는 성과가 있는 단위를 중심으로 최소화할 것으로 보임.[119] 즉. 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 현장정치에서 당·국가 회의체를 중심으로 한 '회의 정치'에 집중하는 통치방식으로 전환됨을 의미. 이는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강화 전략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방식과의 큰 차이점이자 특징임.

2. 경제 분야

○ **김정은 시기 10년 동안 북한의 변화는 속도와 범위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경제 분야는 정치, 군사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컸음.**

- 제8차 당 대회 결정사항을 중심으로 경제계획의 수립과 조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4차례의 전원회의를 소집하며 2021년 인민경제계획을 수정. 이것은 정비 보강, 선택과 집중의 경제 전략을 통해 5개년 전략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 기조 변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120]
-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사활적인 사업으로 식량 문제와 살림집 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인민생활 향상 문제를 지적했음.[121] 동시에 북한은 농업과 건설 분야에 집중하며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임.

118_ 김상범, "2020년 김정은 체제 정치변화 평가와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반도 정세-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창원: 경남대학교 출판부, 2020), p. 36.

119_ 위의 글.

120_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21 북한 동향과 분석』, p. 10.

121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pp. 1-3.

- 북한은 자립적 경제 구조와 전반적 발전을 위해 경제 중요 부분인 금속과 화학공업에 집중하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부문의 최대화두는 국가 경제사업 체계의 통일과 질서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중앙계획경제시스템의 복원을 의미함. 그러나 국가 통제의 강화와 시장 및 민간 부분의 자율성도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이 직면했던 문제는 저성장과 경제불안, 대북 경제제재의 강화였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정부의 경제관리 능력 강화 및 시장시스템의 도입에 집중하고 있음.[122]
- 북한은 이를 위해 당 중앙검사위원회과 내각의 권능을 강화해 관료주의, 단위특수화 및 본위주의와의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비공식 경제주체들을 공식경제로 편입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계획 영역에 대한 중앙 통제 강화'와 '계획의 영역에 대한 자율성의 현실적인 확대'라는 투 트랙 접근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123]

○ **북한은 미중 전략적 경쟁 및 북미, 남북관계 악화의 장기성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생산력을 바탕으로 인민생활 향상에 주안점을 두면서 소위 '버티기 경제 전략'을 운영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이 "15년 안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세우겠다"[124]고 주장하는 것은 2030년대 중반까지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등 국내 재정비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전략을

122_ 이영훈, "최근 10년간 경제제도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정은시대 경제정책-101가지 질문·답변』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p. 40.

123_ 위의 책, p. 405.

124_ "김정은-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력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낸 서한 주체110(2021)년 4월 29일," 『로동신문』, 2021년 4월 30일, p. 1.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125]

- 그러나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국방공업 발전의 성과 간 상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성과도 100%, 국방공업의 성과도 100% 달성을 의미함. 그러므로 경제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제한으로 인한 자원 동원의 한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북한이 목표로 했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들은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분야 평가·전망에서 주목할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경제 및 기술 관료들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이들의 발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임**.

- 체제전환을 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봤을 때,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경제, 기술 관료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최고지도자는 이들에 대해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는 노력이 필요함.
-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문제 해결에서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고 경제, 기술 관료들을 내각 총리, 조직지도부장,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등 핵심 보직에 등용하고 있는 것은 3중고 상황에서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복원,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임.
- 이러한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개혁·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쌓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함.[126]

125_ 전재성, "미래 50년 한반도 국제정치와 한국의 선택,"『한국과 국제정치』, 제38권 제1호 (2022년 봄), p. 284.

126_ 윤영관,『외교의 시대-한반도의 길을 묻다』(서울: 미지북스, 2015), p. 271.

3. 군사 분야

○ **북한은 ▲미국이 미소냉전시기 추구했던 군비경쟁과 대결을 현재 동아시아에서 재현, ▲미중경쟁(북한식 표현은 중미모순)을 방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중의 일방적인 힘이 동북아 및 한반도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고 균형을 맞추는 노력 필요, ▲미중경쟁의 심화 및 남북관계 악화는 한미 당국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해 이들과의 정면승부전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함.**

- 이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문제는 자신들의 대내외 정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로 인식·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북한은 20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자신들의 주적은 한미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이며, 특히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변했다는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다며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음.[127]
- 북한의 주장은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중국에 경도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자신들의 체제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와 한반도 차원의 전쟁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잘 보여줌.

○ **북한은 제8차 당 대회에서 결정된 국방력 강화 노선 이행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군사적 대립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128]

- 북한은 미중 전략적 경쟁으로 인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화 구조에서 강대국 정치를 역이용해 그들의 지정학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127_ "국방발전전람회에서 하신 김정은동지의 기념연설," 『로동신문』, 2021년 10월 11일, p. 3.
128_ 김상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평가," 『IFES Brief_2022-1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2.6.14.), p. 6.

- 미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및 국내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북핵 문제에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의지와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임.[129]
- 북한에게 진영화 구조 및 미일-중러, 미러-남북의 추가적인 대립 구도는 가장 안정적인 지역 구도라 할 수 있으며, 역사적, 외교적으로 매우 익숙한 대외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130]

○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북한이 미중 전략적 경쟁에 집중하면서도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되고 중국의 경제, 군사적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자신들의 핵 개발이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북제재도 중러의 주도 하에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가능성임.**[131]

- 예를 들어, 북한은 2022년 9월 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법령을 채택하였음.[132]
- 이것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자신들에게 핵 보유국에 대한 인정과 비핵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133]

129_ 윤영관, 『외교의 시대-한반도의 길을 묻다』, p. 216.

130_ 조성렬, "미중 패권경쟁과 북한의 대외전략," 이관세 외, 『미중 전략적 경쟁-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하나』 (서울: 페이퍼로드, 2020), p. 193.

131_ 전재성, "미래 50년 한반도 국제정치와 한국의 선택," 『한국과 국제정치』, 제38권 제1호 (2022년 봄), pp. 276-277.

132_ "최고인민회의 법령-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조선신보』, 2022년 9월 9일. 〈https://chosonsinbo.com/ 2022/09/09-82/〉. (검색일: 2022년 9월 9일).

133_ 전재성, 위의 글, pp. 276-277.

4. 대남·대외 분야

○ 김정은 체제 10년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남·대외 분야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 봤을 때, 정책과 노선 면에서 가장 변화가 컸던 것으로 평가됨.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상대적 군사력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임.

-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최초의 북한 무기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대북전략 수정을 요구한다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었음.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동북아 차원의 안보 문제가 아니라 자국 및 전 세계의 안보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함.

○ **북한은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북미,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당분간 대외관계 보다는 내치에 집중하며 체제 안정성 및 내구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위기의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134]

- 북한의 내치 집중 전략은 당장의 북미 및 남북대화 개선보다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군사적 수단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대미 억지력 강화뿐 아니라 미래에 펼쳐질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서 대남·대외 전략 부분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임.[135]
- 북한이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중장기적 차원에서 보고 북미 협상과 남북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추구하면서 핵무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인식과 정책도 달라져야 할 것임.

134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3일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1년 6월 18일, p. 1.

135_ 전재성, 위의 글.

- 단기적으로 북미 및 남북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이며, 국내 재정비를 통해 더욱 강력한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지역적 군사 강대국으로 등장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은 난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136]

5. 사회·문화, 보건·의료 분야

○ **북한은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도덕 기강의 확립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상사업을 통해 사회 전반에 사회주의 및 유일영도체계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은 위원장은 나라의 문명 수준은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국가 부흥과 발전, 미래를 보여주는 징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137] 당과 간부들의 역할 강화를 핵심으로 한 소위 '문화혁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김정은 세대들의 올바른 교육, 양성을 위해 집단주의 정신에 기초한 사회주의생활양식 확립을 강조하고 있음. 사회주의 생활양식은 외부세력들과의 힘, 사상·신념, 문화·양식의 대결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운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138]
- 이를 위해 북한은 4대 근로단체를 중심으로 조직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 살림집과 같은 교육, 보건, 문화 및 편의봉사 시설에 대한 적극적 활용과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136_ 위의 글.

137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 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pp. 1-2.

138_ "사회주의생활양식확립은 혁명의 전진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 『로동신문』, 2021년 3월 14일, p. 1.

중앙과 지방 당 차원에서 '시·군·리' 당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139]

- 김정은 위원장의 15년 내 사회주의 강국 건설 주장은 '사회주의 의식과 문화를 가진 인민'을 대거 양성, 즉 북한 체제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바치는 인간으로 재교육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139_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리당위원회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나라의 4000분의 1을 맡았다는 높은 당적자각을 안고 분발하자," 『로동신문』, 2021년 3월 4일, p. 3.

V

결론: 정책적 고려 사항

V. 결론: 정책적 고려 사항

○ 북한의 전 분야에 대한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김정은 체제가 지향하는 방향을 예측해 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겠음.

○ 북한의 자체 평가 내용을 종합해 보면,

- 첫째, 정치 분야와 관련해서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기반해 당 회의체를 중심으로 체제 관리, 운영함으로써 권력승계를 마무리하는 등 체제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향후 북한은 당 회의체 활용의 지속, 김정은의 혁명사상을 구체화, 체계화시킴으로써 최고지도자의 권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둘째, 경제 분야와 관련해 북한은 경제난 해결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내각의 역할 강화, 관련 법·제도 정비,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국가 재정비 전략(15년)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며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내외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체제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셋째, 군사 분야와 관련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 지속과 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내부 환경을 조성해 오는 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음.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와 역할을 강화해 감으로써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넷째, 대남·대외 분야와 관련해 북한은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중단,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체제공고화 및 안정성 강화라는 국가 이익과 목표에 충실하면서 한반도 상황 관리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임.

- 다섯째, 사회·문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 북한은 인민의 안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반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해 오고 있음. 장마당 세대들이었던 현 청년세대들에 대한 사상교육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주의'와 '애국'에 기반한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강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이 핵 무력을 법제화(2022.9.8)한 것은 기존 비핵-평화론에서 유핵-평화론으로 입장 선회를 한 것으로 보임.[140]
- 북한이 한미군사연습 중단, 제재 철회 등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하고 한미가 첨단무기 반입과 중단 등 적대시정책 철회를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함.
- 우리는 북한이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완성 선언을 계기로 전략국가론을 제시하고 군사적 균형과 한반도 세력 균형론을 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임.
- 한국과 미국은 기존 대응 전략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북한이 대적관계 및 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과 공세적인 핵 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는 위협을 예측하고 현실적은 대응이 모색되어야 함.
- 남·북·미·중 4개국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단계적 감축, 한미연합훈련의 중단(또는 축소), 남북한 군비통제 및 평화체제 구축,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의 전환이 필요함.[141]

140_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북핵 관련 특강 자료, 2021년 11월 3일.
141_ 정성장,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10년 평가 및 전망,", pp. 234-236.

참고 문헌

국내 문헌

고유환. 북핵 관련 특강 자료. 2021년 11월 3일.

김병로. “북한실태 인식,” 『2020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화상회의 자료집, 2020년 10월 29일), pp. 122-123.

김상범. “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개최의 정치적 의미,” 『IFES Brief_2021-0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1.2.18.), p. 2.

_____. “제8차 당 대회 개정 규약에 대한 분석, 평가,” 『IFES Brief_2021-18』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1.6.10.), p. 4.

_____. “2020년 김정은 체제 정치변화 평가와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반도 정세-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창원: 경남대학교 출판부, 2020), p. 36.

김일한. “선군에서 인민으로, 국가정상화전략 평가와 전망,”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공동 국제학술회의, 2021.11.2.), pp. 48-53.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21 북한 동향과 분석』 (서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22), p. 577.

_____. 『2020 북한 동향과 분석』 (서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21), p. 454

박서화. “비사회주의 투쟁의 최근 경향과 함의,” 『IFES Brief_2021-2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1.7.2.), pp. 1-6

박형중. “북한 신년사에 나타난 정세인식과 대내외 정책(1989-2019),” 『통일문제연구』, 제32권 1호(2020 상반기), p. 2.

안경모. “김정은 시대 통치 이데올로기와 국가전략,”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공동 국제학술회의, 2021.11.2.), pp. 23-27.

안제노·이수석. 『김정은시대 권력구조의 재편과 김정은의 통치구상』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p. 11.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 19.
윤영관. 『외교의 시대-한반도의 길을 묻다』 (서울: 미지북스, 2015), p. 271.
이영훈. "최근 10년간 경제제도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정은시대 경제정책-101가지 질문·답변』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p. 40.
이형종·이규민·유석훈·송상헌.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북한의 대외인식 분석 연구," 『북한학연구』, 제17권 제2호(2021), pp. 98-99.
임을출. 『김정은시대의 자력갱생-계승과 변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21), pp. 151-166
전재성. "미래 50년 한반도 국제정치와 한국의 선택," 『한국과 국제정치』, 제38권 제1호 (2022년 봄), pp. 276-277, pp. 286-287.
정성장.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10년 평가 및 전망,"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공동 국제학술회의, 2021.11.2.), pp. 234-235.
조성렬. "미중 패권경쟁과 북한의 대외전략," 이관세 외, 『미중 전략적 경쟁-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하나』 (서울: 페이퍼로드, 2020), p. 193.
진희관. "김정은 정권 10년의 '혁명활동'과 대남혁명노선 변화의 의미," 『북한학연구』, 제17권 제2호(2021), pp. 11-13.
한성훈. 『북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인민의 얼굴』 (파주: 돌베개, 2019), p. 51.
홍민·강채연·박소혜·권주현. 『김정은시대 주요 전략·전략용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p. 14-17.
홍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1): 전략적 기조," 『Online Series』, CO 21-03 (2021).
탁용달.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제: 인식, 정책 그리고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 (2020년 겨울), p. 143.
귀스타브 르 봉 지음, 정명진 옮김. 『사회주의의 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부글북스, 2018), p. 341.
콜린 프린트 지음, 한국지정학연구회 옮김.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길, 2009), p. 61, p. 69.

외국 문헌

Davis, James C.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April 1962), pp. 5-19.

Dillon, Robin S. "Self-Respect: Moral, Emotional, Political," *Ethics*, Vol. 107, No. 2 (January 1997), pp. 230-231.

Holsti, K. J.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14, No. 3 (Sep., 1970), p. 245, p. 308.

Hudson, Stephen D. "The Nature of Respect," *Social Theory and Practice*, No. 6 (1980), pp. 69-90.

Jackson, Van. "The EC-121 Shoot Down and North Korea's Coercive Theory of Victory,"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the-ec-121-shoot-down-and-north-koreas-coercive-theory-victory (검색일: 2020년 5월 13일).

Jensen, Lloyd. *Explaining Foreign Polic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2), pp. 33-34.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 14-16.

Lane, Robert E. "Government and Self-Esteem," *Political Theory*, Vol. 10, No. 1 (February 1982), p. 5.

Statman, Daniel. "Modesty, Pride and Realistic Self-Assessment,"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42, No. 169 (October 1992), p. 426.

Weldes Jutta. "Bureaucratic Politics: A Critical Constructivist Assessment,"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42, No. 2 (November 1998), p. 218.

Zetterbaum, Marvin. "Self and Subjectivity in Political Theory," *The Review of Politics*, Vol. 44, No. 1 (January 1982), pp. 62-66.

북한 문헌

『로동신문』, 2016년 5월 7일; 2016년 5월 8일; 2019년 4월 13일; 2020년 8월 20일, 2021년 1월 9일; 2021년 1월 10일; 2021년 1월 11일; 2021년 1월 15일; 2021년 1월 17일; 2021년 2월 14일; 2021년 2월 17일; 2021년 2월 18일; 2021년 2월 19일; 2021년 3월 4일; 2021년 3월 9일; 2021년 3월 10일; 2021년 3월 14일; 2021년 3월 19일; 2021년 3월 20일; 2021년 3월 28일; 2021년 4월 24일; 2021년 4월 29일; 2021년 4월 30일; 2021년 5월 6일; 2021년 5월 14일; 2021년 5월 19일; 2021년 6월 16일; 2021년 7월 12일; 2021년 8월 23일 ; 2021년 9월 12일; 2021년 9월 27일; 2021년 9월 30일; 2021년 10월 11일; 2021년 10월 12일; 2021년 12월 14일; 2021년 12월 15일; 2021년 12월 16일; 2021년 12월 20일; 2021년 12월 22일; 2021년 12월 23일; 2022년 1월 11일; 2022년 1월 15일; 2022년 2월 7일; 2022년 3월 29일; 2022년 4월 11일; 2022년 6월 3일; 2022년 7월 4일; 2022년 9월 30일.

조선사회과학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kass.org.kp/index.php/course/view/618〉.

지봉철·리성길·리희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교수참고서-고급중학교』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pp. 10-11.

평양출판사. 『위인과 강국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20), pp. 567-569.

기타

정교진. “북, 당의 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재차 손보나?,” 『DAILY NK』, 2022년 1월 14일. 〈https://www.dailynk.com/〉. (검색일: 2022년 7월 3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조선신보』, 2022년 9월 9일. 〈https://chosonsinbo.com/2022/09/09-82/〉. (검색일: 2022년 9월 9일).

회원가입안내

◉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본 연구소로 우송 또는 제출하여 주시고, 회비를 납부하심으로써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회원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ifes.kyungnam.ac.kr)

◉ 회비 및 재가입

1. 1년회비
   학생회원 : 30,000원
   일반회원 : 50,000원
   기관회원 : 100,000원
   개인평생회원 : 1,000,000원
   기관평생회원 : 3,000,000원
   * 해외회원은 우송료 15,000원 별도 청구

2. 납부방법
   ① 연구소에 직접 납부
   ② 온라인 : 경남은행 / 570-07-0011980, "경남대학교"

3. 재가입 : 회비 만기일 1개월 전에 회비를 재납부 하시면 됩니다(안내문 발송함).

◉ 회원의 혜택

1.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움 등 연구 행사에 초청이 됩니다.
2.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 『한국과 국제정치』와『현대북한연구』 등의 간행물이 제공됩니다.
   * 해외회원에게는 『Asian Perspective』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면 영문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독하셔야 합니다.
3.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기존 출판도서 구입 시 30%의 할인혜택 (평생회원에게는 무료기증)

◉ 문의처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전화 3700-0725, 팩스 3700-0722, E-mail : pedia@kyungnam.ac.kr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가입 신청서

* 신청일 20 년 월 일

분 류	□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개인평생회원 □ 기관평생회원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자택주소	□□□□□		전화:( ) -
			휴대폰 :
			E-mail :
직장(학교) 주소 및 직위	□□□□□ 직위 :		전화:( ) -
우편물발송	□ 직장(학교) □ 자택		
학력사항	대학교 과 □석사 □박사과정 학기 (학생회원) 대학교 과 □석사 □박사학위 (연도)		
전공 및 관심 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 경력			
가입권유인			

※ 굵은 선 안의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입니다.

※ 기관회원인 경우 기관명과 주소, 이메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목적

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회원님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회원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 간행물 배송지 발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지사항 전달 등

2.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1) 연구소는 회원가입, 원활한 회원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 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및 기타 연락처, 이메일주소, 학력사항
   - 선택항목 : 전공 및 관심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경력
2) 개인정보 수집방법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3) 연구소는 회원님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님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 및 보존

1) 제공하신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가입일로부터 탈퇴일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되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탈퇴를 하신 경우라도 이용요금의 정산, 소송이나 분쟁의 대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보존되며, 이 때 보존되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은 해당사유에 국한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_____ **(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